

사선문화제, 내달 1일 개막

임실 사선대 일원서 3일까지... 향토음식 경연·사선녀 선발 등

전북의 대표 향토문화축제인 2023 사선문화제가 오는 31일 풍년맞이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선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선문화제는 사선대에서 놀다 간 사선선과 사선녀 설화를 바탕으로 30여 년간 지속해온 임실군의 향토축제이다. 제37회 사선녀선발 전국대회와 함께 무형문화재 필봉농악이 주관하는 전국농악경연대회, 소충·사선문화상 시상식 열매의 고장 임실고추와 치즈를 이용한 향토음식 경연대회, 제30회 사선가요제, 제1회 신선전국장기대회, 축하공연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행사 첫날인 1일은 사선선녀를 기리는 신위제를 필두로 임실 특산품을 활용한 향토음식 경연대회, 제37회 사선녀선발 전국대회 예선을 펼칠 예정이다. 둘째 날은 사선녀선발 전국대회 본선이 치러지며, 아마추어 가수들이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낼 제30회 사선가요제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국회의장상을 겨루는 전국농악경연대회가 펼쳐지고 제1회 신선전국장기대회, 소충·사선문화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또한 코미디언 이용식의 사회로 진행되는 축하공연에는 장민호, 김성환, 현숙, 장영우, 레

아디터 등 10명의 가수가 흥을 돋울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사)대한장기연맹과 공동으로 제1회 사선문화제대 신선전국장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회 방식은 일반부와 어르신부로 나누어 대국을 펼치며 이번 대회는 장기 전문 채널인 브레인 TV에도 중계될 예정이다.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양영두 위원장은 "하루 다른 사선선녀 전설이 깃든 사선대에서 열리는 사선문화제에 많이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향토축제인 사선문화제가 올해도 사선대 일원에서 펼쳐진다"며 "가을빛이 물들어가는 사선대에서 멋진 낭만과 추억을 담아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최근 도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2023 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사업 4회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라이브 활용 방법은 이렇게’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내 예술인 역량 강화 4회차 교육
예술인에게 필요한 디지털 기초 역량 향상 기회 마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최근 도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2023 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사업 4회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해 도내 예술인의 저작권 관련 교육, 행정, 유튜브 마케팅 등 실무중심의 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튜브 마케팅 실무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4회차 교육은 으뜸스튜디오 소영섭 대표를 초청해 도내 예술인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활용 방법 및 영상 기획에 대한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라이브 채널 운영, 유튜브 활용법 등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기초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예술인은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향후 영상편집과 관련된 심화 과정이 개설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는 9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의 참석을 원하는 도내 예술인들은 이메일(j_7447@tamai.net) 또는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0~3)로 신청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올 가을 매주 토요일마다 전통공연예술의 정수 만끽

국립민속국악원, 9~11월 '토요국악무대'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민속음악의 멋과 흥을 즐길 수 있는 '토요국악무대'의 하반기 공연을 9~11월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개최한다. 토요국악무대는 지역민들과 남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전통공연예술의 진수를 선보이는 공연으로 펼쳐지는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으로, 9월 2일에는 삼도풍물가락을 비롯해 무용 민살놀이춤, 기악합주 신빛노래, 단막창극 화초장 대목, 민요 동백타령으로 등 신명난 국악의 향연을 펼치며, 23일에는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를 비롯해 무용 승무, 산조 이종주, 민요 농부가, 삼도설장구 등 품격있는 국악의 멋을 만날 수 있다.

이러 10월 7일은 무용 부채입춤·가인어묵, 지역희류 해금산조, 강선영류 태평무, 단막창극 어사·월매상봉 대목, 풍물매 부포·소고 개인놀이 가 펼쳐지고 10월 21일에는 판소리 흥보가, 심청가, 춘향가의 대표 눈대목을 감상할 수 있다. 2023년도 마지막 '토요국악무대'인 11월 18일에는 기악합주 회상, 교방굿거리춤, 단막창극 토끼 배 가르는 대목과 판국과 설장구놀이로 무대가 꾸며지며, 관리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을 비롯해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추가) 및 전화(063-620-2329)로 예약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화초장

어사·월매상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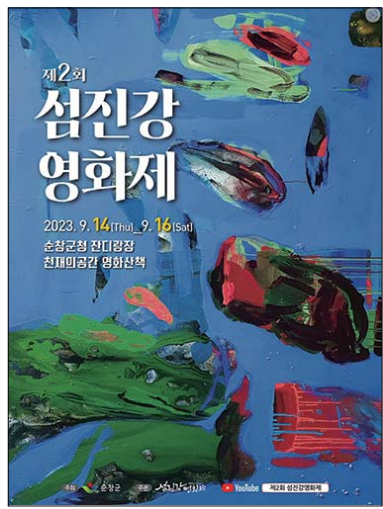


섬진강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섬진강 물줄기·빛과 바람이 교감하면서 생기는 변화 추상화
영화제 프로그램, 통·합·류·맥 등 4가지 흐름으로 진행
영화제는 순창군청 잔디광장서 내달 14~16일 3일동안 개최

순창군 섬진강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오는 9월 14일 개막하는 '제2회 섬진강영화제' 공식 포스터와 함께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올해 포스터는 섬진강 예술인 마을 주민 박진영 작가의 '섬진강 노스텔지아'라는 작품으로, 순창 섬진강의 물줄기와 빛과 바람이 교감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찰나의 변화를 회화적 언어로 추상화해 자연이 선사해 주는 감성과 울림을 담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 관객과 주민들이 함께 교감을 나누고, 그 아름다운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꿈이 시작되고, 열매를 맺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며 'OUR HAPPY TIME'(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슬로건을 정했다. 이번 영화제는 섬진강 물줄기가 하나의 큰 강을 이뤄내며 굽이쳐 흐르는 형상을 주제로 한 통(通)·합(合)·류(流)·맥(脈) 4가지 흐름을 가지고 진행된다.

첫 번째 '시네마토크: 통(通)'은 감독과 관객이 함께 영화를 감상하며, 작품 해석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 두 번째 '위드시네마: 합(合)'은 우리 삶을 녹여낸 영화를 편안하게 즐기는 상영전으로 이뤄진다. 이어 세 번째 '한국장편경쟁: 류(流)'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장편경쟁섹션으로, 한국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찾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네 번째 '한국단편영화초청: 맥(脈)'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맥을 짚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백학기 섬진강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제2회 섬진강영화제는 교감과 화합의 가치를 담고 있는 섬진강의 물줄기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사랑하는 누구나 함께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섬진강영화제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제2회 섬진강 영화제 포스터

향유적 만족도를 높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회 섬진강영화제는 순창 군청 잔디광장에서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sff.or.kr)를 참고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대, 도내 고교생 대상 '숏콘텐츠 창작캠프' 진행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학장 안정훈)은 지난 28일 전북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숏콘텐츠 창작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콘텐츠의 힙, K-스토리의 힙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번 캠프는 세계의 다양한 콘텐츠 원천 소스를 체험해 보는 '영·중·일 글로벌 콘텐츠 탐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직접 웹툰 스토리와 숏폼 사운드 등을 제작해 보는 창작 실습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학생들에게 해외 문화권의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영미권 히어로 & 빌런 VR 콘텐츠 체험', '중국 서유기 캐릭터 체험', '일본 콘텐츠 탐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세계 각국의 이야기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캐릭터 모델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어 실습으로 이뤄진 숏콘텐츠 창작 시간에는 실무 전공 교수들의 밀착 지도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구현해 보기도 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글로벌 문화 속의 캐릭터와 이야기를 체험하고 직접 숏폼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서 관련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콘텐츠 기



획 분야를 탐색하며 진로를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은 글로벌 콘텐츠 분야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학년도부터 웹툰문화콘텐츠학과와 웹툰에 창작 전공을 신설할 예정이다. 안정훈 학장은 "앞으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콘텐츠 분야에 있어 핵심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며 "양질의 웹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K-콘텐츠를 해외시장에 보급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순창 문화컨텐츠제작소 미디어 교육·사업 '다채'

스마트폰 활용 영상편집 실습 등 호응... 내달 6일까지 2차 교육 추진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문화컨텐츠제작소'에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공유 창업공간인 랩팜 플랫폼 부속건물인 '문화컨텐츠제작소'는 지역 주민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순창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기록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컨텐츠를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곳으로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다. 군은 문화컨텐츠제작소를 활용해 지난 7월부터 미디어 활용방법과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컨텐츠제작을 지원하고자 '스마트폰 활용 영상편집 실습교육'과 '노래교실 및 음원제작 교육'을 실시해 지난 14일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그 호응에 힘입어 추가로 2차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2차 교육은 '스마트폰 활용 영상편집 교육' 과정으로 28일부터 9월 6일까지 4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편집기법을 배우고 개인 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



정이다. 아울러, 오래된 비디오테이프(VHS형식)를 PC나 휴대폰에서 재생가능한 디지털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장동 속 추억 소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민들이 간직한 소중한 추억을 다시 꺼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및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농업기술과 농업교육팀(063-650-5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관광벤처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내달 15일까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3 전라북도 관광벤처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내 관광분야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과정에 필요한 경영, 세무, 관광 트렌드 전라과 노하우 등을 전수해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기업가정신, 사업계획서 작성 및 멘토링, 관광분야 홍보 마케팅 등 실제 현장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이론과 실무 위주로 구성, 기본과 심화과정(화차별 20시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기본과정은 창업 및 각종 지원사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도내 관광분야 예비 창업자 양성과 기

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교육 신청은 관광분야 창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관광기업지원센터 및 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고 게시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ta.or.kr)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